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8-2019 연말연시 모금캠페인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두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이인혜 데레사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심각한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 산골마을,
2017년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힘찬 마중물이 되어, 지금 부룬디 마캄바 마을의 물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물공급을 위한 수자원 시설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은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도 받고 있다고 해요. 마을 물길이 완성되고 주민들과 지역정부가
힘을 모아 시설을 관리하면 가뭄에도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부룬디 산골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2탄'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부룬디 마캄바 지역 6개 마을에 수자원 시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시작한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부는 작년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아프리카 부룬디 마캄바 지역 6개 산골마을을 잇는 물길을 잇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수원지 주변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 파이프 라인 설치를 위한 도랑파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산꼭대기까지 물을 끌어 올려줄 전동 펌프 시설과 끌어올린 물을 모아둘 저장탱크를 완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 3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지는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2탄'을 통해 주변 산간 6개 마을을 잇는 파이프 라인공사와 배분탱크, 급수대 건설 등 제반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룬디 현지 마을 주민들과 지역정부가 협력하여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부룬디 마캄바 산골 마을에 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 물길을 잇기 위한 두 번째 모금 캠페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세요.

※ 본 캠페인은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진행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연말연시 모금캠페인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부룬디 마캄바 지역 6개 마을에 수자원 시설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2탄'에 참여하는 방법



모금기간 2018. 12. 1.~2019. 2. 28.

후원금 1계좌에 3만 원 (1인당 2~3계좌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84-077777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무통장입금 시 후원자명 앞에 부룬디를 붙여주세요.
(ex. 부룬디홍길동)

연락처 02)727-2267, 2299로 입금 후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obos.or.kr)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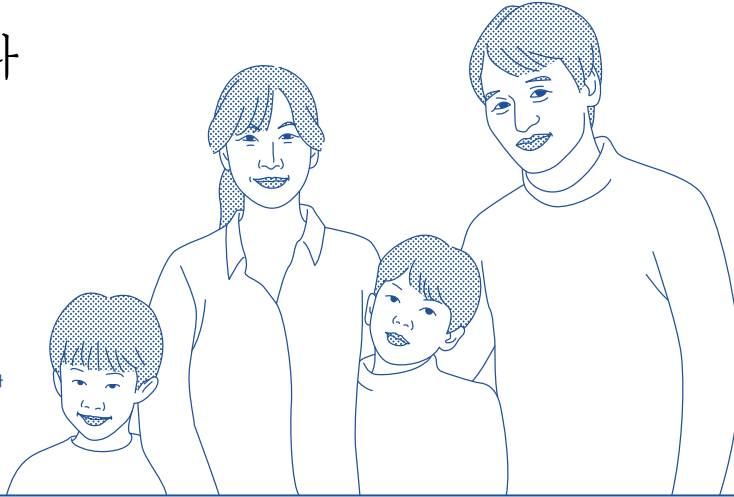
※ 참여하신 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본부에서 준비한 'OBOS with 부룬디' 마그넷과 소득공제용 납부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9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결혼과 자녀는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이종혁도미니코 · 김희선로사
가정



삼포세대(三抛世代)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 오폭세대(五抛世代)는 집과 경력을 포함하여 5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칠포세대(七抛世代)는 여기에 희망,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함해 7가지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이종혁도미니코·김희선로사 부부는 이런 칠포세대 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련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하느님의 섭리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더 많이 봉사하며 살고 싶어서였죠. 출산하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공감아 됩니다. 그럼에도 결혼하고 출산하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저희도 12년 만에 뜻하지 않은 아이가 생겼는데 행복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과 후,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 이 둘은 각각 다른 삶의 차원이 것 같아요. 행복의 감동이 달랐습니다. 더욱 근원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아이가 생겼는데 부부는 감사한 마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 감정을 하느님의 섭리로, 나아가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첫 아이를 낳고 행복함과 감사함까지 더해 부부는 첫째 준수사도요한(11)의 첫 돌 축의금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생애첫기부에 후원했습니다.

인연이 계속 되어 둘째 승수스데파노 반델리(7)도 생애첫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매년 준수와 승수의 생일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사출력소 '이미지넷'을 운영하는 이종혁씨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생애첫기부 전달식을 기념하는 사진 액자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총 2만 개 이상의 사진 액자를 기부했습니다. 나눔가게와 '하루 100원 모으기'에도 동참하고 조혈모세포기증과 장기기증희망등록도 약속했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후배 부부에게 가급적 아이는 둘 이상 낳으라고 권유합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공동육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한 명인 집은 부모도 아이도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반면 아이가 둘 이상인 집은 아이도 부모도 마음가짐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둘째가 있는 것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좋겠다’고요.”

“결혼하기도 아이 낳는 것도 힘들고 두려운신가요. 그냥 인생 선배들의 권유, 아니 교회의 가르침을 믿어보세요. 힘들긴 할지라도 진리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인생을 배신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적, 물질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체성사로 초대하시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14,16)고 말씀하십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간 가톨릭 비타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펼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생애첫기부’ 함께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아시아의 가난한 친구들이나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본부 사무실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기념액자를 만들어 드리고 감사장을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선물과 감사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 신청방법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02)727-2299

• 후원계좌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1005-684-077777

국내 환자 치료비 지원

우리은행 1005-198-33445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범국민 생명나눔캠페인

생명나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계속 뛰게 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계속 지켜줍니다.

‘생명나눔’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www.obos3042.or.kr

가톨릭생명나눔센터

1599-3042

서울 명동성당 1898 지하광장 내

생명나눔으로 사랑을 이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던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곁으로 가신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온화한 얼굴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만 같습니다.
그 인자한 모습이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당신 역시 이 짧아 보이는 지상에서의 여행은 거의 끝났다고
하시면서 아직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에는 멀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미 그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까지 당신의 두 눈을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고만 생각했는데,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가르침은 놀라운 신비와 기적처럼 우리 곁에 남아 교회 안팎에서
장기기증의 열풍을 일으키며 생명나눔운동의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

- 바보가 바보들에게, 김수환 추기경 잠언집


그렇습니다. 추기경님 말씀처럼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당신이 뿌려주신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싹틔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1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김 추기경께서 신앙의 모범으로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많은 신앙인들이
본받아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생명나눔으로 사랑을 이어주세요.

글 | 김영삼 커뮤니케이션팀 홍보담당



생애첫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첫 번째 기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2017.01.09생 父 김영민 母 김보애 | 김동연 2018.01.07생 父 김현구 母 이창윤 | 김소민 2017.08.19생 父 김진오 母 이한나 | 김수겸 마카엘 2018.01.13생 父 김영호 母 신효선 | 도강민 2018.01.15생 父 도태완 母 김혜정 | 명수훈 2018.02.12생 父 명준우 母 김정은 | 박레오 레오 2018.01.05생 父 박성민 母 국혜선 | 박서휘 안나 2018.01.29생 父 박성제 母 서자용 | 박태준 2018.02.16생 父 박흥국 母 장혜정 | 배가람 글로벌아 2012.10.23생 父 배재빈 母 하은하 | 배규리 리타 2018.01.10생 父 배주환 母 이종은 | 배서형 라파엘라 2017.09.26생 父 배재민 母 하은하 | 유진 2018.01.14생 父 유종민 母 최윤정 | 윤혜원 아네스 2018.01.29생 父 윤여향 母 이민주 | 이다복(태명) 2019.04.03생(예정) 父 이진호 母 정희경 | 이로하 2018.09.16생 父 이영도 母 한유은 | 이지윤 2018.01.09생 父 이현석 母 이윤아 | 이해민 크리스티나 2017.01.07생 父 이도관 母 김선영 | 임서완 다미안 2014.01.02생 父 임문혁 母 신현경 | 장보훈 2018.10.06생 父 장현찬 母 이슬민 | 정수아 2018.09.20생 父 정재엽 母 최윤형 | 제갈서빈 2017.01.16생 父 제갈필름 母 박정아 | 조하진 2018.09.07생 父 조일홍 母 정주리 | 최아은 2018.11.21생 父 최현중 母 조혜원

두 번째 기부
고은찬 가브리엘 2015.12.03생 父 고동현 母 현경원 | 김아정 2005.02.10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 김에서 바실리아 2001.01.06생 父 김준현 母 노자영 | 김차민 2018-03-02생 父 김성욱 母 박선영 | 염태윤 하상바로 2016.09.25생 父 염정훈 母 박시원 | 윤라임 레아 2017.01.17생 父 윤재환 母 최혜나 | 윤지호 레오 2017.01.17생 父 윤재환 母 최혜나 | 이민희 2018.01.23생 父 이상민 母 허주연 | 임소정 사라 2016.10.11생 父 임종명 母 김설주 | 정우혁 2017.01.27생 父 정재구 母 허연미 | 조은성 2016.07.24생 父 조현민 母 손준현 | 차다운 플로라 2016.12.28생 父 차준영 母 김혜정 | 표이안 레미지오 2017.10.01생 父 표용하 母 이주호

세 번째 기부
고민서 2016.01.05생 父 고윤석 母 성민정 | 김다인 2017.02.05생 父 김영삼 母 이재은 | 김다인 스텔라 2000.04.19생 父 김도엽 母 김경희 | 김도윤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도훈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리호 루치아 2016.01.01생 父 김호승 母 최유리 | 김아현 엘리사벳 2013.10.09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 김윤하 플로라 2015.11.30생 父 김혁진 母 정세은 | 김은송 그라시아 2017.01.08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재승 이나시오 2015.06.24생 父 김원섭 母 정미연 | 김준 프란치스코 2016.01.24생 父 김건 母 오주은 | 성태은 에스테르 2017.01.16생 父 성시준 母 채희주 | 이유진 스테파노 2016.03.14생 父 이윤원 母 석민주 | 조영우 노엘 2015.12.17생 父 조지현 母 양혜미 | 최라은 로즈마리 2017.01.31생 父 최영현 母 김진경 | 최밝을 2013.12.16생 父 최생기 母 김경자 | 한지유 2016.01.18생 父 한용기 母 이인경

네 번째 기부
구자균 2015.01.12생 父 구동희 母 박민지 | 김시우 프란치스코 2013.01.08생 父 김종보 母 백소연 | 김아영 2012.04.26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 박서진 프란치스코 2015.01.08생 父 박보현 母 서지은 | 박수현 안드레아 2015.12.02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박준후 2015.02.24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우상승 2016.01.10생 父 우도희 母 정승아 | 이다빈 2014.12.16생 父 이경수 母 전영민 | 이다현 바틸다 2016.01.09생 父 이준영 母 윤나리 | 최밝을 2011.11.07생 父 최생기 母 김경자 | 최연서 베로니카 2015.02.16생 父 최동환 母 이은정

다섯 번째 기부
염지유 에디트 2012.01.13생 父 엄정훈 母 박시원 | 이민건 토마스 아퀴나스 2009.01.28생 父 이재관 母 양미경 | 정연우 2014.01.21생 父 정유석 母 신경하 | 정연우 켈라 2012.01.28생 父 정재광 母 홍지숙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대학교는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가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목)에는 병원사목위원회 주관으로 명동대성당에서 미사가 진행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

본부는 명동대성당 1898광장 내에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에 맞춰 생명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앙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가톨릭교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문의전화 02)3789-3488

여섯 번째 기부
강건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은 | 강시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은 | 김해은 세레자요한 2013.01.21생 父 김경운 母 박은선 | 박준현 디모데오 2012.01.31생 父 박종연 母 김정은 | 오은수 마리스텔라 2013.12.29생 父 오재필 母 김현영 | 이채원 에스텔 2014.02.17생 父 이진호 母 정희경 | 조민재 마카엘 2013.01.14생 父 조준일 母 진민경 | 허상범 루카 2014.01.11생 父 허대영 母 김정숙

일곱 번째 기부
박소원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박소이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한시윤 로사리아 2011.10.07생 父 한준석 母 고은옥

여덟 번째 기부
김동훈 안토니오 2011.01.17생 父 김현욱 母 한주희 | 심세형 안드레아 2012.06.19생 父 심재훈 母 이근정

아홉 번째 기부 박성빈 바오로 2010.02.10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열한 번째 기부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운 母 이근정
--	--

열세 번째 기부 고민을 2015.06.11생 母 고영미	열네 번째 기부 이아람 노엘라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	--

열다섯 번째 기부 이아람 노엘라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여섯 번째 기부 이아람 노엘라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	---

생일 기부 박현선 안젤라 유혜선 안젤라 이여주 베로니카 이정환 마르첼로 이진호 스테파노	축일 기부 심동우 안토니오
--	--------------------------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고재민 시몬 & 김향희 세실리아 결혼 15주년 | 김승효 요셉 & 임은영 플라비아 결혼 1주년 | 송주호 발렌티노 & 정지인 요세피나 결혼기념 | 한준석 세레자요한 & 고은옥 카타리나 결혼 10주년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서동한 승진 기념 | 채희주 세실리아 합격 기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안내

일시	2월 28일(목), 저녁 7시
장소	명동대성당
주제	"아픈이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아픈이들을 돌보는 이들에게는 격려와 지지를..."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병원사목위원회

활동내용	•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상담 및 접수 • 기타 생명나눔 관련 상담 • 명동성당 및 성지 안내(주말), 교회정보제공, 외국어봉사자운영(주말/영어, 일어, 중국어)
운영시간	• 월, 화: 10:00~18:30 / 수~일: 10:00~19:00
장소	• 명동대성당 1898광장 지하 1층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 시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1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 현재 약 10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68호점	서울 강남 학동로 루트벤처스
269호점	서울 서초 양재대로 서초우솔해법셀수학
270호점	서울 서초 효령로 와일드어바웃
271호점	서울 구로 남부순환로 평명수산
272호점	서울 중랑 용마산로 서울이비인후과
274호점	서울 강남 학동로 권익의원
275호점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길 효례교육
277호점	경기 안양 학익로 주식회사 뿌리마쥬
278호점	서울 양천 중앙로 JUICY 쥬이시
279호점	서울 구로 오류로 초이랑방
280호점	전북 익산 고봉로 오거리약국
281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바글바글꽃집
282호점	서울 노원 동일로 와이엑스보청기
283호점	서울 송파 오금로 세움아카데미
284호점	서울 서초 서초중앙로 ㈜유니티드
285호점	서울 성북 보문로 ㈜파인글로벌
286호점	서울 은평 통일로 이꽃아초협동조합
287호점	서울 서초 서초대로 비엔제이건축사사무소
289호점	서울 중구 퇴계로 유정
290호점	서울 강남 선릉로 카페 마가렛
291호점	경기 성남 분당 방아로 ㈜대한특수목종합물류
292호점	서울 종로 종로5길 박보은 간장게장과 삼겹살
293호점	서울 영등포 국제금융로 바디안
294호점	경기 성남 분당 정자일로 ㈜한울트레이딩
295호점	경기 성남 분당 서현로 모유육아상담실
296호점	서울 노원 상계로 소담약국
297호점	서울 구로 디지털로 ㈜아리랑이온
298호점	서울 성동 광나루로 세무회계 경향
299호점	부산 부산진 부천로 포비전테크
300호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우나 스텔라
301호점	부산 강서 명지국제대로 명지이비인후과
302호점	경기 남양주 미금로 녹색카페 모든이에게모든곳
303호점	서울 구로 디지털로 이우오퍼레이션㈜
304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K&MT
305호점	서울 강남 도산대로 소프트시티㈜
306호점	서울 강서 양천로 행오부동산

※ 기준: 2018. 2. ~ 2019. 1.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54,252명
2019. 1. 21. 현재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은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세상을 만들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365일 나눔실천 운동입니다.

-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방법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문의 02)774-3488